

상생뉴스



더 빠르고! 더 안전하고! 더 편리한!
Rail Network 실현

/ 발행인 강영일 / 편집인 신철수 / 기사문의 042)607-3085 / http://www.kr.or.kr /

경부선 화산천교(성균관대~화서역간) 개량공사 본격 추진!

- 철도공단, 노후교량 개량으로 열차 안전운행 확보 및 환경소음개선 기대 -

수도권본부(본부장 김영하)는 열차안전운행 확보 및 소음개선을 통한 주민생활환경 개선을 위해 260억원을 투자해 경부선 성균관대역~화서역 구간에 위치한 화산천교(수원시 장안구 서호천을 통과) 개량공사를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수원시 장안구 서호천을 통과하는 경부선 화산천교는 건설된지 100년 이상된 노후 교량으로, 집중호우 시 안전에 취약하고, 열차운행 소음으로 인해 주민들의 불편이 많았다.

철도공단은 2015년 8월에 본격적으로 공사를 착공해, 2019년 상반기에 완공할 예정이며, 화산천교 개량공사가 완료되면 철도안전향상 뿐 아니라, 기존의 철교교량에서 콘크리트 교량으로 바뀌면서 열차운행소음이 줄어 주민생활환경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본부 관계자는 “공사기간이 50개월로 장기간 공사가 시행됨에 따라 지역주민, 지자체 등 관계기관의 협조가 절실하다.”며, “주민들과의 원활한 소통을 통해 고품질의 안전한 철도교량을 건설하겠다.”고 전했다.

대기업 독과점 방지 및 중소기업 활성화를 위해 심사기준 완화

- 철도공단, 종합심사낙찰제 기준 개정...7월말 도담~영천 노반공사부터 적용 -

경영지원실(실장 이명환)은 지난해 종합심사낙찰제 시범사업에서 발생한 대기업의 수주 독과점을 방지하고 중소기업의 입찰참여 저조 등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종합심사낙찰제 특례 운용기준”을 개정하여 7월27일(월)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주요 개선사항을 보면 기존에 업체별 시공실적 계산 시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시공비율에 따라 계산하던 방식을, 시공실적을 단순 합산하도록 바뀐, 일반적으로 시공비율이 낮은 중소기업도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입찰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였고

* 시공실적 계산 예시

예) 구성원 A사(지분 70%, 1,000m 시공), B사(지분 30%, 실적 500m) 시공 시	
(기존) 시공실적 인정	(변경) 시공실적 인정
* A사 실적은 700m (1000m×70%) * B사 실적은 150m(500m×30%) ☞ 총 시공실적은 850m만 인정	* A사 실적은 1000m * B사 실적은 500m ☞ 총 시공실적 1,500m 모두 인정

대기업이 공동수급체를 구성할 경우 구성원의 참여비율에 따른 배점항목을 신설하였으며, 구성원 중 지역업체가 포함되어 있을 경우 지역업체의 참여비율에 따라 가점을 부여할 수 있게 개선했다.

또한, 시공평가점수가 없는 중소기업 또는 지역업체를 컨소시엄으로 구성하더라도, 감점이 되지 않도록 실적이 없는 업체는 평가대상에서 제외하도록 개선함으로써, 대기업에 비해 상대적으로 실적이 부족한 중소기업도 공동도급참여를 쉽게 할 수 있도록 했다.

이 외에도 가격심사에 대한 변별력 강화를 위해 입찰금액 만점구간을 변경하여 올해 시범사업을 시행할 계획이며, 단가심사에도 감점범위(±15% → ±18%)를 확대 적용해 적절한 낙찰율을 확보하도록 했다.

* 입찰평가금액 평가 개선내용

입찰금액 평가 시 만점구간 변경	
기존	변경
*입찰차 평균입찰금액 기준 -3%이내 ☞ 입찰금액 만점	(1안) *입찰차 평균입찰금액 기준 -1%이내 만점 (2안) 입찰가 만점구간 폐지 ☞ 입찰건별로 구분 적용해 개선효과 검증

특히, 중소기업에서 적극적으로 개정을 건의하였던 시공실적심사 기준은 입찰자의 40%를 만점업체로 제한하는 상대평가방식에서, 사업의 규모 및 특성에 따라 만점업체를 결정하는 절대평가방식으로 변경해, 실적이 적은 중소기업도 만점을 받을 수 있도록 개선했으며, 토목공사의 동일공사실적 인정기준도 중소기업의 사정에 맞춰 완화해 입찰참여 기회를 확대하였다.

발주처 : 교량 900m, 터널 500m 시공발주 시	
기존 평가 (교량은 해당 공사규모의 1배 이상, 터널은 1km단위)	변경 평가 (교량은 해당 공사규모의 1/3배 이상, 터널은 200m단위)
업체실적) 교량공사 700m, 터널공사 500m ☞ 교량 실적 900m미만으로 미인정 ☞ 터널 실적 1km미만으로 미인정	업체실적) 교량공사 700m, 터널공사 500m ☞ 교량 실적 300m이상으로 700m 인정 ☞ 터널 실적 200m이상으로 500m 인정

경영지원실 관계자는 “이번 기준개정으로 대기업의 수주 독과점 방지와 중소기업과의 상생발전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게 될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철도공단은 정부3.0정책에 따라 개정된 내용은 27일부터 공단 홈페이지(www.kr.or.kr)를 통해 개정된 내용을 공개한다.

철도공단, ‘고속철도 신호분야 기술공유 워크숍’ 개최

- 수도권 고속철도 성공적인 개통을 위한 기술 노하우 창조를 위하여! -

기술본부(본부장 김상태)는 7월23일(목) 오송 교육홍보관에서 “수도권고속철도 성공적인 개통”을 위한 고속철도 신호분야 기술공유 워크숍을 개최하였다.

최근에 성공적으로 개통한 호남고속철도와 포항 연결선 고속철도사업 그리고 경부고속철도 열차제어시스템 열차제어시스템이란 열차 속도가 지시 속도를 초과하였을 때 자동으로 제동이 체결되며 운행과 관계되는 정보를 실시간으로제공하는 시스템 구축에 참여했던 신호분야 전문가 및 관련사와 현재 건설 중인 수도권고속철도건설 사업 참여업체 등 30여 명이 참석하였고, 그동안 고속철도 건설 구간에서 경험했던 신호분야 노하우 및 사업 추진과정에서 개선사항들을 설계, 제작, 시공, 시험 및 시운전까지 각 단계별로 발표하고 질의하는 형식으로 진행되었으며,

다양한 성공, 실패 사례와 의견을 나누므로 고품질의 열차제어시스템을 건설하기 위한 소통의 장이 되었다.

이날 토론회에서 ▲ 최신 도면관리를 위한 절차 개선 등 설계관리개선 4건, ▲ 현장 전원공급 방법개선 등 시스템개선 4건, ▲ 지장물검지장치 장애요인 개선 등 시공방법 개선 7건, ▲ 공기단축을 위한 정적시험 방법개선 2건 등 총 17건이 도출되었고, 관련기준 개정 및 수도권고속철도 현장 시공에 반영하므로, 열차안전운행, 품질향상, 공기준수, 유지보수 편의개선 등 상당한 효과가 기대된다.

본부 관계자는 “과거 고속철도 건설경험으로부터 도출된 개선방안은 한국철도만의 노하우로, 즉시 수도권고속철도건설사업에 반영하여 효율적으로 시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으며, 향후에도 이러한 기술 노하우 창조를 위한 선순환 작업들을 지속적으로 시행하여 고속철도 신호분야 경쟁력을 강화하는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철도공단, 추경예산 하루라도 빠른 집행을 위한 발빠른 행보

- 철도건설 추경예산 6,472억원 조속집행을 위한 긴급 집행 회의 개최 -

기획재무본부(본부장 박인서)는 “지난 24일 국회에서 통과된 철도건설 추경예산 13개 사업 6,472억원에 대해 서민경제 활성화와 경기침체를 회복하는데 철도건설이 마중물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속도감 있게 집행 하겠다”고 밝혔다.

철도공단은 추경예산을 하루라도 빠르게 집행하기 위해서 이사장 주재로 7.27일 전국 지역본부장 등 사업부서장이 참석하는 추경예산 긴급 집행 회의를 개최하고, “예산집행을 위한 행정절차와 세부 사업별 구체적인 집행방안을 마련한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는 7.29일 까지 예산배정을 모두 완료하는 등 예산집행을 위한 행정절차를 조기에 마무리하여 이르면 7월말 부터 예산집행에 들어갈 수 있도록 세부분야별 집행계획을 세우고, 최대한 조기에 집행하기로 하였다.

착공초기 사업인 서해선 복선전철 등 6개 사업은 용지보상비 집행과 노반공사를 추가 시행하고, 특히 100억원이 확보된 보성~임성리 사업은 총사업비 변경 협의를 거쳐 5개 공구에 대해 공사계약 발주하여 집행에 차질이 없도록 할 예정이며, 공사가 진행중인 원주~강릉 등 5개 사업은 금년 차수공사 물량 추가시행을 위한 설계변경과 완공예정인 진주~광양 등 2개 사업 등은 노반공기단축 및 궤도, 시스템 등 후속 공정을 조기에 시행할 예정이다.

강영일 이사장은 “금년 추경예산은 SOC 중 절반이 넘는 예산이 철도건설 사업에 반영되어 그 어느때 보다도 공단의 위상이 높아졌으며 이에 따른 책임과 역할이 매우 강조되는 시기라면서, 자금을 신속하게 집행하여 침체된 경제를 살리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는데 공단이 앞장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철도공단은 이번 철도건설 추경예산으로 6,834명의 고용창출과 1조 4,387억원의 생산유발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며, 금년 추경예산(6,472억원)과 분예산(7조 9,787억원)을 합친 8조 6,259억원을 연내까지 집행하면 운행 중인 철도연장 4,284.5km에서 5,178.7km로 894.2km*의 철도연장을 조기에 건설하는 효과가 있다고 밝혔다.

철도공단은 앞으로 매월 재정집행점검 및 사업관리 리스크 대응 회의를 열어 사업추진 공정과 예산집행 상황을 지속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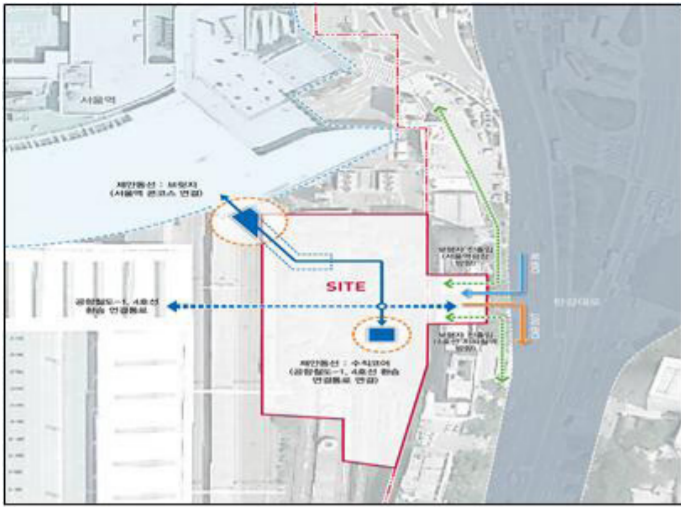
철도 건설사업 추경예산

(단위 : 억원)

사업명	'15년 예산 (A)	추경예산 국회의결 (B)	'15년 변경예산 (A+B)	비고
합 계	29,214	+6,472	35,686	
1. 진주~광양 복선화	2,000	+412	2,412	
2. 동두천~연천 전철화	400	+100	500	
3. 원주~강릉 복선전철	9,200	+2,920	12,120	
4. 이천~문경 철도건설	800	+200	1,000	
5. 서해선 복선전철	400	+400	800	
6. 포항~삼척 복선전철	4,540	+500	5,040	
7. 부전~마산 복선전철	160	+240	400	
8. 부산~울산 복선전철	3,125	+350	3,475	
9. 군장산단인입철도건설	1,304	+150	1,454	
10. 성남~여주 복선전철	3,933	+450	4,383	
11. 도담~영천 복선전철	2,500	+600	3,100	
12. 진접선 복선전철	800	+50	850	
13. 보성~임성리 철도건설	52	+100	152	

철도공단, 서울역 인근 부지 호텔시설로 본격 개발 추진

- (사)새마을운동중앙회와 사업추진협약 체결 -



시설본부(본부장 이수형)는 (사)새마을운동중앙회와 서울역 인근 철도시설부지(서울특별시 용산구 동자동 43-205, 4,299㎡) 개발사업을 위한 사업추진협약을 체결했다고 23일 밝혔다

(사)새마을운동중앙회는 서울역 인근 철도부지에 호텔을 건설하는 내용의 사업계획서를 제출했으며, 철도공단은 지상15층, 연면적 1만9,901㎡ 규모의 호텔시설로 개발이 완료되면, 서울역에서 KTX를 탑승하는 철도이용객 뿐 아니라, 공항철도를 이용하는 항공이용객 수요까지 흡수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철도공단은 (사)새마을운동중앙회가 사업주관자로 선정됨에 따라 사업을 추진할 특수목적법인(SPC : Special Purpose Company)을 설립하고, 사업성과 공공성을 살려 본격적으로 개발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본부 관계자는 “서울역 인근의 철도부지 개발사업으로 공단은 329억원의 수익창출이 가능하고, 인천공항을 이용하는 외국인을 비롯한 철도이용객의 여행서비스 만족도 향상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

- (구간/사업비) 쿠알라룸푸르-싱가포르, 약 120억불
- (사업 방식) 민간협력사업(PPP) AP or BOT-MRG
- * AP (Availability Payment) : 민간사업자가 일정 수준 이상의 서비스를 제공하면 수요 등과 상관없이 양국 정부가 운영수입을 보장 (Payment Guarantee) 하는 방식
- * BOT-MRG : 민간사업자가 시설물을 건설 및 운영하고, 양국정부가 최소운영수입보장을 특정기간 제공하는 방식
- (사업 내용) 324km(말레이 310km/싱가폴 14km), 8개 역사, 2개 차량기지
- (사업 기간) 35년 (건설 5년, 운영 30년)
- (이용 승객) 49,000/일, 연간 18백만명 예상
- (수주지원단) 국토부, 한국철도시설공단, 한국철도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 한국철도기술연구원, 한국교통연구원



철도시설공단, 태풍 등 기상영향 대비 비상근무체제 유지

- 태풍 복상에 따라 취약시설 사전점검 및 재난대책상황실 운영 -

안전품질실(실장 정천덕)은 강풍과 많은 비를 동반한 제12호 태풍 ‘할랄라’가 북상하면서 우리나라에도 직간접적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재난대책상황실을 운영하는 등 비상근무체제를 유지한다고 밝혔다.

철도공단은 7월23일(목)부터 집중호우에 취약한 선로변 절개지와 흠막이, 지하굴착 및 하천제방 공사현장 등 취약시설에 대한 긴급점검활동을 시행하고, 이번 태풍에 직·간접적인 영향을 받게 되는 26일부터는 재난상황 대비를 위해 대전 본사에 재난대책상황실을 운영하고 지역별로 비상근무체제를 유지할 계획이다.

특히, 철도운행선, 도로 및 산사태·급경사지 위험지역 등과 철도건설현장의 인접지역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순찰 활동을 강화하여 위험징후 발견 시 즉각 응급조치하고, 인근 지역주민에게 국민행동요령을 사전 홍보하도록 각 지역 공사현장에 전달했다.

안전품질실 관계자는 “최근 전 세계적인 기상이변으로 안전사고 발생 우려가 높아진 만큼, 국민들이 안전하게 철도를 이용할 수 있도록 철도건설현장 및 선로변 시설물에 대한 철저한 안전점검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태풍 발생 시 국민행동요령]

- 공사장 근처에는 위험하니 가까이 가지 맙시다
- 철도건설현장의 전차선로는 전기가 공급되면 특고압 전기가 흘러 매우 위험하니 접근금지
- 토공 굴착면의 붕괴, 토석 낙하 위험장소에 이동금지
- 강풍 시 건물입간판 및 위험시설물 주변 보행 및 접근금지
- 선행강우로 급경사지 등 붕괴위험지역 출입금지
- 대형공사장 위험측대 등 시설물 주변 접근금지

철도변 환경을 깨끗하게.. ‘환경관리업무가이드’ 마련!

- 철도공단, 체계적인 환경관리를 위해 ‘환경관리업무편람’ 제작 및 배포 -

안전품질실(실장 정천덕)은 철도선로변 환경개선을 통해 국민들의 생활환경을 개선하고, 환경친화적인 철도를 건설하기 위해, 환경관리에 관한 기준과 절차 등의 내용을 알기 쉽게 정리한 ‘철도건설공사 환경관리업무편람’을 제작해 전국 철도건설현장에 배포했다고 30일 밝혔다.

철도공단이 제작 배포한 ‘환경관리업무편람’의 내용을 보면 철도 공사현장 인근 주민들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 철도운행소음·진동 등을 저감할 수 있도록 ‘환경저감시설’을 미리 예측·분석해 설계단계에 반영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과 절차를 수록했고, 시공단계에서는 건설현장의 폐수처리시설, 비산먼지방지시설 등 설치절차와 방법 및 피해 발생 시 환경피해 최소화 할 수 있는 관련 법규정 등을 포함했으며, 준공단계에서는 환경오염이 추가로 발생되지 않도록 소음진동, 수질 등에 대한 주기적인 모니터링 업무내용을 담았다.

특히, 수동적인 환경개선업무가 아닌, 폐철도부지를 활용한 생태복원사업, 태양광발전설비, 레일바이크설치 등 지역주민의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과 친환경시설 설치 사업도 포함했다.

안전품질실 관계자는 “철도건설 시 필요한 법과 규정들을 체계적인 정리한 환경관리업무편람을 전 철도현장에 배포하여, 건설현장에서 발생될 수 있는 환경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고, 피해발생시 신속한 대처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

철도공단, ‘말레이시아~싱가폴 고속철도’ 수주경쟁 본격화!

- 국내 컨소시엄 구성을 위한 대대적 사업설명회 개최 -

해외사업본부(본부장 오재욱)은 7월22일(수) 서울 대한상공회의소 국제회의장에서 국토부와 공동으로, 말레이시아 수도 쿠알라룸푸르와 싱가포르를 잇는 총연장 324km의 ‘말레이시아·싱가포르 고속철도 연결사업’에 참여할 민·관합동 컨소시엄 구성을 위해 대대적인 공개 설명회를 시행했다고 밝혔다.

이번 설명회는 금년 3월부터 공단과 민간기업이 공동으로 시행한 자체 사업타당성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 사업성 분석 ▲ 자원조달 방안 ▲ 한국 컨소시엄 구축 필요성 등에 대한 순으로 진행될 예정이며,

국내 대형건설사, 철도차량을 포함한 철도시스템 제작사, 설계사 및 금융사 등 약 75개사 200여명이 참석해 우리 기업의 해외 고속철도사업에 대한 높은 관심을 보였다.

철도공단은 말레이시아 고속철도 사업이 민간협력사업(PPP:Public Private Partnerships)으로 발주될 예정인 만큼, 사업수주를 위해서는 정부, 공공기관 및 민간기업이 공동으로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선제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이번 사업설명회를 진행했으며, 설명회 이후 사업에 참여할 의사가 있는 민간회사로부터 참여의향서(LOI:Letter of Intent)를 받아, 참여 희망업체가 많은 경우 평가를 통해 선정할 예정이다.

강영일 이사장은 “입찰이 일본, 중국, 프랑스, 독일 등 시속 300km이상의 고속철도 기술 보유국간의 치열한 국가 대항전으로 치러질 것으로 예상되나, 2004년 개통한 경부고속철도의 성공적 운영과 지난 4월 순수 우리 기술로 건설한 호남 고속철 추가 개통 등 최근 고속철도건설 경험을 바탕으로 민관이 적극 협력하여 차근차근 준비해 나간다면 승산은 충분히 있다”며 수주에 자신감을 내비쳤다.

한편, 말레이시아~싱가포르 고속철도 건설사업은 사업비만 120억불에 달하며, 수주 시 3만 5천명의 신규 고용 창출 및 GDP 성장률 0.46%의 상승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철도공단은 금년 8월말까지 국내 건설투자자(CI:Construction Investor) 및 재무투자자(FI:Financial Investor)들로 한국컨소시엄 구성을 마치고 금년 말까지는 중동 국부펀드 등 해외 투자자 유치 활동에 적극 나서는 한편,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현지사를 포함하는 그랜드 컨소시엄 구성을 완료하여, 성공적인 사업수주를 위해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동해선 영덕~삼척 철도건설사업 2018년까지 완공!

- 철도공단, 용지보상, 문화재 발굴 등 본격 공사 추진 중 -

영남본부(본부장 권영철)는 2018년 포항~삼척 철도건설사업 완공을 위해 영덕~삼척간 구간에 대해 올해 7월말부터 본격적인 공사추진을 위한 용지매수, 문화재 발굴공사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포항~영덕~삼척간 철도건설사업(총연장 166.3km, 영덕~삼척구간 122.2km)은 총사업비 2조9,979억원을 투입하여, 환동해권 철도망을 구축하는 사업으로,

철도공단은 철도건설로 국토의 균형 발전과 경북권 관광수요 분담 및 동남권~동해안권과의 연계로 국가 기간철도망 구축을 통한 개발촉진과 주민들의 교통편의 향상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포항~삼척간 철도건설 사업이 2018년 모두 완료되면 포항에서 삼척까지 버스로 약 3시간 10분이 소요되던 이동시간이 약 1시간 20분으로 약 2시간 단축되고,

올해 4월에 개통되어 운행 중인 신경주~포항KTX직결노선과 연계되면, 동해권 전 지역으로 철도로 인한 수혜지역이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본부 관계자는 “포항~삼척간 철도가 개통되면 동해권 주민들의 교통편의 증진은 물론, 아름다운 자연경관과 먹거리를 활용한 관광자원 활성화로 지역경제에도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고품질의 안전한 철도를 2018년까지 완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포항~삼척 운행시간>

* (철도) 노반실시설계보고서 TPS 분석결과 반영

구 분	거 리	시 간	속 도	비고
포항-영덕	43.8km	20분	130.1km	새마을 기준
영덕-삼척	122.5km	57분		
계 (포항-삼척)	166.3km	1시간 17분		

* (버스) 3시간 10분 소요 (포항~삼척간, 포항시외버스 소요시간)

철도공단, 중앙선(영천~신경주) 복선전철 사업 착공!

- 2018년말 완공..경부고속철 등 타노선과 연계로 교통편의 대폭 향상 -

영남본부(본부장 권영철)는 중앙선 영천역~신경주역간 26.3km구간 철도건설사업 본격적으로 착공해 2018년 12월에 완공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7천494억원의 사업비가 투입되는 중앙선 영천에서 신경주간 복선전철 건설사업은 지역을 연결시키는 간선철도로써의 역할을 물론, 우리나라 남북축 교통에 중추적 기능을 담당하는 경부선과 중앙선을 연결하고,

부산, 울산 및 포항을 연결하는 동해남부선 및 영남권 순환철도망을 형성하는 대구선과 연결되는 국가기간 철도망 사업으로 2018말까지 완공할 계획이다.

철도공단은 현재 단선 비전철 노선으로 되어 있는 철도노선을, 복선으로 전철화하여 경부고속철도 신경주역까지 연결하게 되면, 일일 열차운행횟수를 현재 39회에서 2019년에는 53회, 2040년에는 56회까지 늘릴 수 있고, 철도를 횡단하는 평면교차도로를 입체화하여 원활한 교통흐름 및 교통안전도 향상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본부 관계자는 “중앙선 복선전철화 철도건설로 경부선, 중앙선, 동해남부선 및 경부고속철도의 연계 철도망이 구축되면, 수송능력 향상과 고속철도 이용권역 확대 및 지역 주민의 교통편의 도모 등 큰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전했다.

중앙선(영천~신경주) 복선전철 건설사업 개요



- 사업개요
- 사업내용 : 중앙선(영천~신경주) 26.3km(복선전철)
- 사업기간 : 2015년 ~ 2018년
- 총 사업비 : 7,494억원

경부고속철도 대전·대구도심구간 건설사업 현황

□ 사업개요



- 사업비 : 2조 8,851억원(대전 1조 2,148억원, 대구 1조 6,703억원)
- 공사기간 : 2008~2015년
- * 지자체 위탁사업(동대구고가교 등 횡단인체시설)은 '16.12월까지 추진

□ 사업효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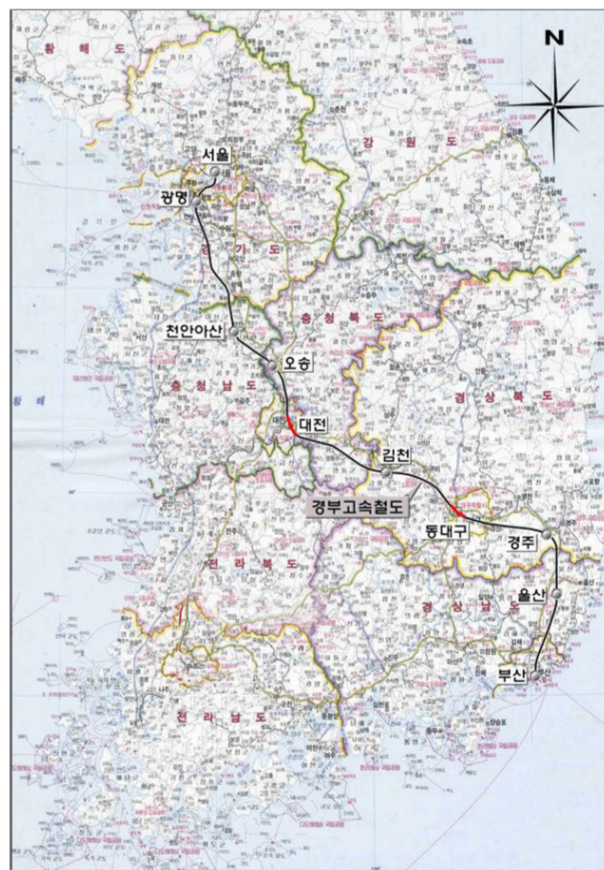
- 거리단축 : 6.5km 단축(423.9km→417.4km)
- * 대전도심 : 5.5km (23.7km → 18.2km)
- * 대구도심 : 1.0km (28.1km → 27.1km)
- 시간단축 : 평균 5분 단축(154분→149분, 3개역 정차 기준)

□ 개통준비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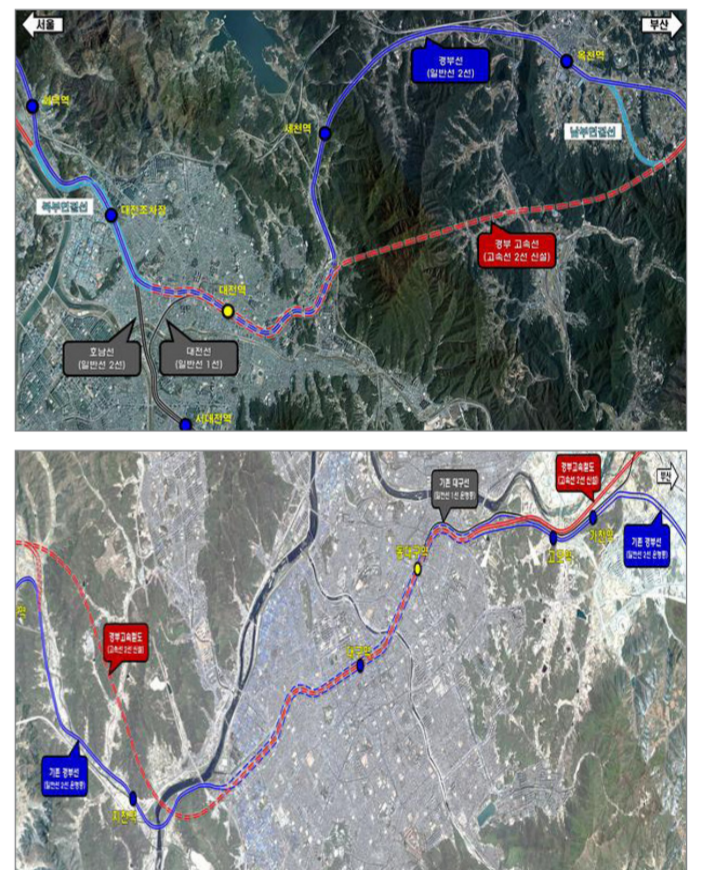
- 노반, 궤도, 전차선 등 '15. 2월 전 시설물 완공
- 시설물 검증 완료('15. 5. 18), 영업시운전 완료(' 15. 6. 30)
- * 영업시운전 열차 총 680회 운행
- ☞ 7. 1일~개통전까지 선로안정화 및 KTX기장 노선숙지를 위해 시운전 열차 운행(주 3일/1일 2회)

사전준비			종합시험운영		선로안정화	개통
종합 계획 수립	종합시험 운영계획 수립	- 예비정검 - 공중별시험 - 사전정검	시설물 검증	영업 시운전	시운전 열차 계속 운행	
14.12. 9	'15. 1.26	'14.12.17 ~ '15. 3.20	'15. 3.30 ~'15. 5.18	'15. 4. 27 ~ 6.30	'15. 7. 1 -15. 7.31	'15. 8. 1

경부고속철도 노선도



경부고속철도 대전·대구도심구간 노선도



철도공단 호남본부, '철도사랑 하계캠프' 운영

- 지역아동센터 어린이 20명 초청...터널공사현장 견학 및 물놀이 -

호남본부(본부장 이현정)는 7월30일(목) 전남 순천시에 위치한 조곡지역아동센터 학생 20명을 초청하여 제3회 '철도사랑 하계캠프'를 운영하였다.

'철도사랑 하계캠프'는 2013년부터 철도공단 호남본부 직원들이 순천지역 취약계층 아동의 정서적 지원을 위해 운영 중인 'KR공부방' 활동과 함께 매년 시행하고 있다.

이날 캠프에 참가한 학생들은 경전선 철도건설 터널공사현장 견학을 마친 뒤, 자매마을인 구례군 방광마을의 참새미계곡을 찾아 물놀이, 풍선배구게임 등 공단이 마련한 다채로운 행사를 즐겼다.

이날 행사에 앞서 호남본부에서 정기적으로 후원하고 있는 선로변에 거주하는 조손가정 3가구에 후원금을 전달하는 등 나눔의 의미를 더 했다.

이현정 본부장은 “호남본부 직원들의 작은 손길이 지역아동센터와 조손가정의 아동들에게 희망의 손길이 되길 바란다.”면서, “앞으로도 지역의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다양한 봉사활동과 지원을 지속적으로 펼쳐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경부고속철도 대역사 마무리... 대전·대구도심 개통

- 고속전용선으로 8월1일 본격운영 시작 -

건설본부(본부장 김계웅)는 대전역 및 동대구역 전후 도심구간 45.3km에 대해 고속전용선 공사를 완료하고, 8월 1일 개통함에 따라 경부고속철도 서울에서 부산까지 전 구간 417.4km가 고속철도 전용노선으로 재탄생 한다고 밝혔다.

경부고속철도 건설사업은 우리나라에 교통혁명을 가져온 최초의 고속철도사업으로 1992년 6월 착공한 이래 총20조 6,598억원의 사업비가 투입되었으며, 이번 대전·대구도심구간을 개통을 마지막으로 23년간의 기나긴 건설역사에 마침표를 찍게 되었다.

철도공단은 이번 도심구간 개통으로 고속철도 전용노선이 확보되어, 그동안 KTX와 다른 열차가 선로를 공용으로 사용함에 따라 서로 지장을 주는 등의 문제가 해소되고, 전용노선 운영으로 안전사고의 위험도 대폭 줄어들게 되어 보다 빠르고 보다 안전한 경부고속철도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한, 하루 일방향으로 KTX열차를 240회까지 운행이 가능해져 수송효율성도 대폭 향상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경부고속철도 대전 및 대구도심구간은 노반, 궤도, 전차선 등 전 시설물을 2015년 2월 완공하고, 종합시험운영(시설물검증 및 영업시운전)을 한국철도시설공단과 교통안전공단이 합동으로 종합시험팀을 구성하여 시설물의 정상작동 여부 및 시설물과 차량간 연계성 등 검증을 시행하는 등 철저한 개통준비를 해왔다.

특히, KTX 기장의 노선 숙지 훈련, 신호시스템 등 열차운행체계 검증을 위하여 영업시운전열차를 총 680회 운행하는 등 개통준비를 완료한 이후에도 안전성 향상을 위해 7월 1일부터 한 달간 하루 2차레 주 3회의 시운전열차를 추가 운행해 최종점검을 시행했다.

강영일 이사장은 7월 31일(금) 철도공단 본사에서 열린 개통식 기념사를 통해 시공사·감리단 등의 노고에 감사를 표하며, 경부고속철도와 호남고속철도 건설사업의 경험을 바탕으로 말레이시아-싱가폴 고속철도 사업 수주 등 철도의 한류(韓流) 바람을 일으켜 나가자고 강조했다.

철도시설공단 영남본부 '거제유림아시아드 아파트 주민간담회' 시행

- 부산~울산 복선전철 제1공구 현장 인근 주민 민원사항 주민간담회 시행-



영남본부(본부장 권영철)는 7월 21일 연세구청에서 동해남부선 공사 관련 주민요구사항에 대한 적극적인 반응을 위하여 '거제동 유림아시아드 아파트 주민간담회'를 시행하였다.

금번 간담회에는 유림아시아드아파트 입주민, 연세구 교통행정과장 및 건설과 담당, 영남본부 공사관리관 외 다수의 현장관계자가 참석하였고,

유림아시아드아파트 102동 앞 2차선 도로 확장 등 4건에 대한 현황 설명과 적극적인 협의안 제시로 주민들과 상생하는 자리가 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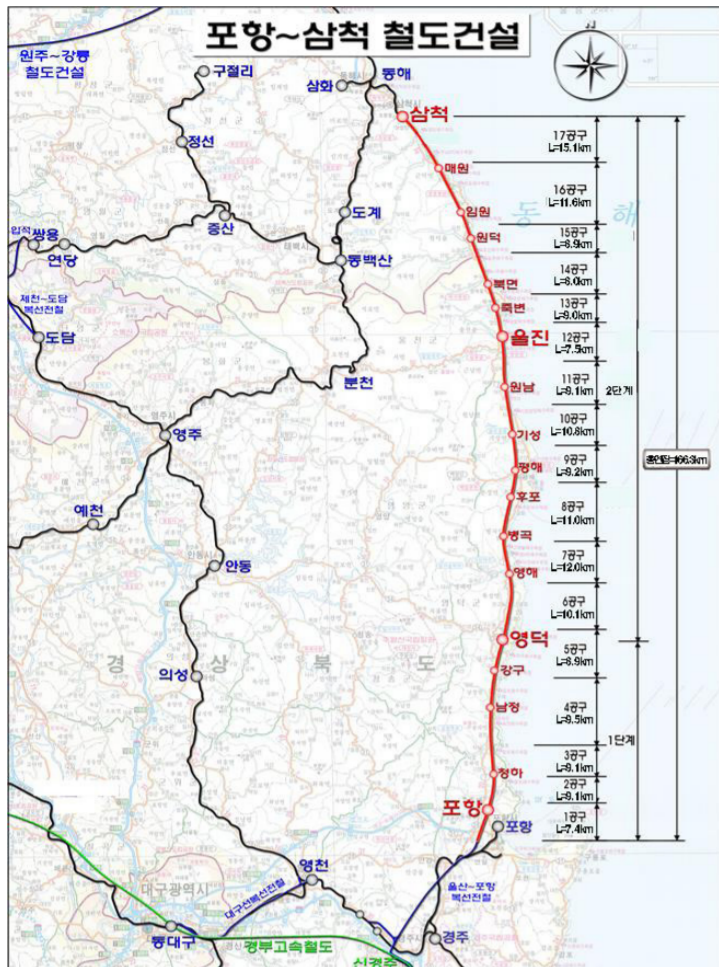
금번 간담회를 통해서 주민들의 동해남부선에 대한 이해도를 높일 수 있었고, 추후에도 지속적인 의견교류와 적극적인 요구사항 검토를 통해 주민과의 화합을 약속하였다.

<영남본부 최재용 기자>



‘포항시 초청 KTX 개통 유공기관 간담회’ 참석

- 철도 사업의 무재해 · 무사고 및 적기개통 다짐 -



영남본부(본부장 권영철)는 포항시로부터 포항 KTX 개통 유공기관으로 초청되어 지난 7월 17일 (금) 간담회에 참석하였다.

이 날 간담회에는 지난 3월 31일 포항 KTX 개통으로 동해안 지역의 큰 도약의 기회가 마련된 것에 대하여 철도시설공단 영남본부장을 비롯하여 공단 직원들의 노고에 감사의 인사와 감사패를 수여받았다.

이에 한국철도시설공단 직원들은 포항 KTX 개통을 초석으로 동해안 지역의 철도건설사업 임무에 대하여 무재해 · 무사고 및 적기개통을 다시 한번 다짐하였다.

한편, 포항 KTX 개통에 이어 진행 중인 동해선 포항-삼척 철도건설사업은 환동해권 철도망 구축으로 국가기간 철도망 확충 및 관광수요 분담 및 지역개발 촉진을 위한 사업으로 2018년 말 완공을 목표로 건설 중이다.

〈영남본부 박원일 기자〉

하계휴가철 맞아 철도기관 공동 청렴캠페인 전개



한국철도시설공단 호남본부(본부장 이현정)는 순천지역을 찾는 철도이용객이 많은 하계휴가철을 맞이하여 순천역에서 한국철도공사 전남본부, 광주지방 철도사법경찰대와 공동으로 청렴캠페인을 벌였다.

이날 캠페인에 참석한 직원들은 순천역 이용객들에게 공익신고 홍보부채와 전단지지를 나눠주며, 공익신고제도와 공단의 청렴 실천의지를 홍보하였다.

이날 청렴캠페인에는 철도공단 호남본부외에 철도공사 전남본부, 광주지방 철도사법경찰대 등 3개 철도기관의 직원 30여 명이 참여하였다.

〈호남본부 김광석 기자〉

호남본부, 이정현 국회의원 초청 특강

- 철도 사업의 무재해 · 무사고 및 적기개통 다짐 -



호남본부(본부장 이현정)는 지난 7월 23일 (목) 오후 4시, 사옥 2층 교양실에서 본부 및 코레일 전남본부 직원 1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새누리당 이정현 국회의원을 초청하여 “진심이면 통한다”라는 주제로 명사 초청 특별강연을 개최하였다.

이정현 국회의원은 이날 특강을 통해 “보성~임성리 등 지역 철도사업 예산 확보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으며 항상 진심·애항심·열정을 가지고 지역발전을 위해 머슴의 자세로 의정활동에 임한다.”고 말하고, 특히 농촌 저운차고 규제에 대한 사례를 들며 현장에서 신속한 업무처리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정현 국회의원은 동국대학교 정치외교학과를 졸업하고 청와대 홍보수석·정무수석 등의 요직을 거쳐, 새누리당 소속으로 전남 순천·곡성에 출마하여 제19대 국회의원으로 당선된 후 현재 새누리당 최고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호남본부는 직원들의 기본소양을 함양하기 위하여 사회 각 분야의 저명인사를 모시고 그들의 삶의 자취와 인생관을 듣는 명사초청 특강을 실시하고 있다.

〈호남본부 문혜진 기자〉



강원본부 탁구동호회 활동이 '13년6.월 이후 잠시 멈추어진 이후 '15.6.15.~'15.6.29. 2주 동안 탁구에 관심있는 직원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15.7.16. 강스매싱 동호회를 발족하였다. 그리고 7월 회원들 대상으로 두 차례 모임을 통하여 임원진 구성 및 동호회 향후 활동계획서 등을 수립하였으며, 7월26일 처음으로 월례대회를 개최하여 우수-박선규 회원, 준우수-김우현 회원, 3등-김진환 회원, 김병웅 회원이 각각 차지하였다. 저마다 실력을 마음껏 뽐내는 시간을 가졌다.

경기 이후 이벤트 경기로 강원본부장(최정환) 대 탁구회장인 전병목 회장이 경기를 시행하므로 동호회 회원들에게 웃음과 즐거움을 주는 한마음의 장이 마련되었다.

경기이후 뒤풀이는 원주시 인동 맛 집에서 진행하였으며, 본부장께서 구내식당 활성화를 위하여 참조하신 식권으로 입상하신 회원들에게 상품권을 전달 하였다. 또한 화기에애한 분위기에서 강원본부 발전을 위한 담소가 지속되었으며, 향후 동호회 회원들의 건강과 조직문화 활성화를 위하여 강원본부장배 탁구대회를 조만간 계획(9월 중)하여 강스매싱(강원본부 탁구동호회)이 함께 할 것을 약속하였다.

〈강원본부 박선규 기자〉

‘호남고속철도 준공자료실’ 개관

- 호남고속철도 준공자료 28,800권 체계적 보존·관리 -



호남본부(본부장 이현정)는 7월 24일 (금) 오후 4시, 본부 사옥에서 ‘호남고속철도 준공자료실’ 개관식을 개최하였다. 호남고속철도 준공자료실은 호남고속철도 준공자료(약 28,800권)를 체계적으로 보존·관리하기 위하여 지난 6월 22일 착공, 약 1억 8천만원을 투입하여 착공한 지 1달만인 지난 22일 공사를 완료하였다.

이날 행사는 이현정 본부장과 직원 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경과보고 △현판식 △기념촬영 △문서고 개방 △다과회 순으로 진행되었다.

이현정 본부장은 “호남고속철도 준공도서 전용문서고 설치로 기존 기록관리실의 협소한 공간문제를 해소하고, 호남고속철도건설사업 수행과정에서 발생한 소중한 자료들을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게 되었다”고 밝히며, 문서고 설치공사와 문서이관 작업에 힘쓴 직원들의 노고를 치하하였다.

호남고속철도 준공자료실은 본부 사옥 지하공간을 활용하여 248.8㎡규모로 설치되었으며, 약 39,000권의 도서를 보관할 수 있다.

〈호남본부 이은경 기자〉

주요기사(2015. 7. 21~7. 31)

2015. 07. 21. [화]

- ◆ 서울시 "영동대로 통합개발로 혼잡 최소화" (한국경제27)
- ◆ 강원선 남측구간 복원 내달 착공(강원도민일보2)
- ◆ 태화강역 증축계획 신속으로 선포(경상일보1)
- ◆ 개발사업 물가품 물라...건설업계 '한숨'(중도일보5)
- ◆ 황성역사 주변 지구단위로 개발(강원도민일보11)
- ◆ 오송역세권개발 구역지정 이변주 결정(대전일보13)
- ◆ 철도 폐선 부지 시민 공간 탈바꿈(매일신문16)
- ◆ 공무원 모두 국내로 여름휴가 행사부 지역경제 회복 캠페인(강원일보4)
- ◆ "향후 3~4년 청년 고용절벽 우려" 일자리 만드는 기업 稅혜택 검토(파이낸셜5)
- ◆ 임금피크제 등 勞政 갈등 해소 최대 과제(파이낸셜뉴스10)
- ◆ 수원보훈지청 '분단극복 열차' 개통식(경인일보10)
- ◆ [현장에서]"정보공개포털이 대체 뭐냐" 는 공무원들(한국경제27)
- ◆ 답합 눈치에 전부터 관광중 '삼성~동탄' 광역철도(엔지니어링데일리)
- ◆ 삼성-동탄 GTX 건설 본격화...2·4·5공구 발주(EBN)
- ◆ 충북선 고속화사업 연말 '중대 분수령'(충북일보)
- ◆ "SOC투자확대 시급"...건설 VS 전문건설 '한 목소리'(이데일리)
- ◆ 수원 노면전차 도입 어떻게?...정책포럼서 토론(NEWS)

2015. 7. 22. [수]

- ◆ 남부내륙고속철, 교통 중심지 '화룡점정' 기대(한국 26)
- ◆ 대구광역권 철도망 예타 통과(매일 O1A)
- ◆ "춘천~속초 동서고속화철도 30년 공약 이번엔 반드시..." (강원 O1)
- ◆ 18조원 인도 고속철에 신 시간센 갈린다(한국경제 O4)
- ◆ "또 시장 겨냥 철도망 투자 지속돼야"(대전 O4)
- ◆ 대전 트램, 출발도 못하고 멈춰서나...(중앙 R01)
- ◆ 소사~원시 복선철 내년 4월 개통 물건(경인 O2)
- ◆ "철도 연결해 남북교류 할 것"(강원도민 O2)
- ◆ 부패 신고 보상금 11억, 역대 최고액 지급(조선 12)
- ◆ SOC예산 지역편중 논란 ... 추경 심의 줄줄이 보류(한국경제 O6)
- ◆ 휴가철 고속도로 내달 1,2일 가장 붐벼(조선 14)
- ◆ 새 임금피크제 도입한 공공기관 2곳(서울 O4)
- ◆ "노동개혁 시간 없다 ... 임금·고용 빅딜 서둘러라"(서울경제 29)
- ◆ [무등칼럼]호남 차별 언제까지 이어질 건가(무등 19)
- ◆ [사설]당진-대산항 인입철도 반드시 관철시켜야(충청투데이 17)
- ◆ "대산항 인입철도 국가철도망 계획에 적극 반영돼야"(종합(연합뉴스))
- ◆ "호남고속철 2단계, 무안공항 경유해야"(NEWS)
- ◆ KTX 서대구역사 건립 '공적' ... "비용보다 편익 커"(연합뉴스)
- ◆ 광주~서울 오가는 100명중 68명 KTX 이용(news1)
- ◆ 부산發 KTX 티켓 사는 대구 시민들, 보통 터프한 사람(조선)

2015. 07. 23. [목]

- ◆ 한국, 말레이~싱가포르 고속철도 수주전 가세(서울신문11)
- ◆ 철원에 '남북출입사무소' 설치 되나(강원일보17)
- ◆ "무안공항 경유 확정후 호남고속철 2단계 착공해야"(광주일보12)
- ◆ "호남고속철 2단계 무안공항 경유 확정하라"(광주일보12)
- ◆ 보성~임성 남해안철도 추경 주목(무등일보4)
- ◆ "제2경춘국도 57개년 계획 반영을"(강원도민일보8)
- ◆ "정부, 보성~임성간 철도 추경 반영"(광주일보5)
- ◆ 김포도시철도 공사현장서 농민 분신(경기일보7)
- ◆ 원주시의회 '여주~원주복합 조기 건설 촉구' 1인 시위(강원도민일보10)
- ◆ 복선전철 조기 이행 촉구 시의원 릴레이 1인 시위(강원일보18)
- ◆ "韓·中 철도·카페리 개통 땀 양국 경제발전에 큰 도움"(세계일보25)
- ◆ 中, 미국 고속철시장 진출 노린다(파이낸셜뉴스9)
- ◆ "총선용 SOC 예산" 추경 안 된다는 野 정당 조정소위에선 "호남 배려" 목청(동아일보5)
- ◆ 지방 "인프라 열악" SOC 사업비 쏠림... 메르스 예산도 요구(서울신문4)
- ◆ 남부발전, 공공기관 첫 임금피크제(부산일보14)
- ◆ [사설]日本 中國의 해외 고속철 수주 ... 한국은 구경만 하나(한국경제39)
- ◆ "공공기관 무기계약직 임금표준안 필요" (전북일보1)
- ◆ 철도공단 말레이시아~싱가포르 고속철 사업설명회(연합뉴스 외 15)
- ◆ 춘천~속초 동서고속화철도 올해 넘기면 재추진 불투명(강원일보)
- ◆ 하남복선전철 이달 착공 오는 2020년 전구간 개통(기호일보,경인일보)
- ◆ KTX수원역 출발 '파란불' ...B/C 1.0 넘어(news1)
- ◆ 자기부상열차 옹호 전문가 대전시 '트램' 운영 참여(연합뉴스)
- ◆ 승강기 내부에서 출입문 개폐여부 확인할 수 있도록 거울 부착 의무화 추진(국민일보)

2015. 07. 24. [금]

- ◆ 철도시설부지 개발 협의 철도시설소, 새마을운동중앙회(대전일보20)
- ◆ 13.8조원대 동남아고속철 수주작전(아시아경제4)
- ◆ 구미~대구~경산 광역권철도망 내년 하반기 착수(영남일보3,경북일보1)

- ◆ "인덕원~수원 복선전철 차질 없이 진행을"(경기일보4)
- ◆ 춘천~속초철 타당성 결과 발표 촉구(강원도민일보2)
- ◆ "수원 노면전차 도입, 법적 정비부터"(한겨레13)
- ◆ 강남구 "영동대로 지하공간 개발에 사용"(문화일보12,서울신문14)
- ◆ 강원도 폐광·폐선 4곳이 관광지로 새출발 합니다(파이낸셜뉴스28)
- ◆ 지방 이전 공공기관 110곳 고강도 사정(매일경제1,6)
- ◆ 노조 동의 없는 임금피크제, 低성과자 해고지침 등 '지뢰밭' (한국일보)
- ◆ "법인세 안 올릴 것... 공공부문 청년 일자리 6700개 창출"(문화일보4)
- ◆ 철도공단, 서울역 인근 부지 15층 규모 호텔로 개발 추진(뉴스1)
- ◆ '14조원' 말레이시아~싱가포르 고속철 수주경쟁 '사동' (건설경제)
- ◆ [뉴스이] 강릉~청량리 열차 운행시간 75분 추진(강릉KBS)
- ◆ 강남구, 영동대로 원상개발 본격 시동(연합뉴스)

2015. 07. 27. [월]

- ◆ "철도시설공단, 최우수 공기업 도약" (파이낸셜뉴스24)
- ◆ 서해복선전철 힘 받는다 (중도일보01A)
- ◆ 지역 12개 사업 추경 2093억 추가 반영 (전남일보2)
- ◆ 충청권 자치단체 "지역건설업계 적극 활용하라" (충청투데이7)
- ◆ 대구 광역철도망 본격 구축 (파이낸셜뉴스24)
- ◆ 국내항공사 광주노선 감축 (파이낸셜뉴스16, 무등일보7, 광주일보3)
- ◆ "동서고속철 조기착공" 주민 비장감 (강원도민일보14)
- ◆ "한국 시스템으로 거미줄 교통망 구축" (세계일보3)
- ◆ 경제 신천지로 가는 관문 북한... ICT로 빛장 열자 (조선일보E01)
- ◆ 얽히고설킨 이해관계 풀 컨트롤타워 먼저 꾸려야 (서울경제3)
- ◆ "임금피크제로 자녀와 일자리 나눠야" (한국경제4)
- ◆ 말레이시아 고속철도 수주 뒤흔들다 (YTN)
- ◆ 철도시설공단, 태풍 등 기상영향 대비 비상근무체제 유지 (국제뉴스)
- ◆ 철도공단, 경부선 성곡관대~화서역간 개량공사 본격 추진 (아시아투데이,국제뉴스)
- ◆ 경부고속철도 통상장애로 KTX 지연운행... "복구완료" (종합2보(연합뉴스,news1))
- ◆ 경기도, "하남·별내선, 동탄~삼성·GTX건설 본격화" (news1)
- ◆ KTX 오송역세권 내달 도시개발구역 재지정된다 (연합뉴스)
- ◆ 국토부, 중동·중남미 이어 인도·필리핀서 수주지원 (연합뉴스,news1,NEWS)
- ◆ 녹색연합 "경원선 복원, 두루미 서식지 파괴 우려" (연합뉴스,경향신문)

2015. 07. 28. [화]

- ◆ 한국철도시설공단 수도권 분부, 지역이동센터 도시기증(동아일보E02)
- ◆ 해운대 폐선부지 개발이나? 원형보존이나? 논란(문화일보14)
- ◆ 수색역세권 개발 첫발 땀(한국경제27,매일경제27,국민일보12,내일신문5,한국일보26)
- ◆ 첫삼 톤 '매송~별말 구간' 녹색공원사업(경인일보21)
- ◆ "안정성 논란" 자기부상열차 중공이나 연가나... 내일 결정(경기일보01A)
- ◆ "광주~에버랜드 복선전철 사업 반드시 추진"(경기일보5)
- ◆ "올해 안 반드시 조기 착공"(강원일보1,18,23,세계일보12,강원도민일보1,09A)
- ◆ "자연생태·지역 특색 어울린 철도특구 만든다" (경기일보11)
- ◆ 뒤로 간 코레일 엠... 업그레이드하니 먹통(경향신문17)
- ◆ 獨·덴마크 잇는 해저터널 '속도'(세계일보1)
- ◆ 1871km 남기고 모스크바 입성... 남북철도-TSR 연결 러도 관심(국제신문6)
- ◆ 靑年 일자리 3년간 7만여개 만든다(조선일보1,5,중앙일보1,4,5,매일경제5)
- ◆ [글로벌포커스]인프라 수출 전쟁과 한국의 전략(매일경제35)
- ◆ 철도공단 중소기업 활성화 위해 심사기준 완화(연합뉴스,NEWS,한국경제,건설경제)
- ◆ 공공기관 비리 윈스트라이크아웃(즉시퇴출)제 '속빈 강정' 물라(건설경제)
- ◆ 해외건설 신시장 연다(국토경제,YTN)

2015. 07. 29. [수]

- ◆ 철도시설소, 추경예산 6472억 조기 집행(파이낸셜뉴스24)
- ◆ 철도공단 추경 6472억 조기 집행(중도일보4)
- ◆ 의정부서 고속철·GTX 타나(서울신문18,아시아경제1,경인일보2)
- ◆ 의정부 고속철, 이번엔 말리나(아시아경제1)
- ◆ 속도 내는 원주~강릉 복선전철(강원일보3)
- ◆ "30년을 기다렸다" (강원일보1)
- ◆ [HOT STORY] KTX수서역세권, 개발 '스피드업'(아시아경제14,대전일보2)
- ◆ "수서발 KTX 서대구역 경유해야" (대전일보2)
- ◆ 4개월째 중단된 마을 고림 대책회의(강원일보22,1,강원도민일보1,14)
- ◆ 이용객 급감한 광주역 '나물리(내일신문6)
- ◆ "남북 철도연결...푸틴도 한국만큼 중요하게 생각" (조선일보6)
- ◆ "北, 러시아 통해 南北철도 긍정적 신호 보내고 싶어해" (조선일보6)
- ◆ 日, 中AIB 본격건제 ... 필리핀에 2조 원조(매일경제8,한국경제9,아시아경제5)
- ◆ 부실 공기업, 행사부 장관이 직접 해산 요구한다(서울신문10)
- ◆ "임금 깎고 자임금 받아도 신입 연봉의 67% 불과 ... 신규채용 못해" (한국경제5)
- ◆ 정부 추경에 서해선복선전철 400억·천안~당진 고속도로 75억(news1)
- ◆ 철도공단 중소기업 활성화 위해 심사기준 완화(국도해양신문,아시아투데이 외)

- ◆ 철도공단, 중앙선 복선전철 사업착공(대구MBC)
- ◆ GTX C노선·고속철 선로 나눠쓰는...의정부~부산 2시간(20분(종합[1/2] (연합뉴스,NEWS))
- ◆ 남부내륙철도 노선서 거제 빠지나(연합뉴스)

2015. 07. 30. [목]

- ◆ [목요일]평광복 70년, 그리고 강원선 철도복원사업(충청투데이 16)
- ◆ 철도 중앙선 영천역~신경주역 복선전철화 착공(매일신문 06면)
- ◆ KTX오송역세권 개발구역 재지정(중도 16)
- ◆ 찬성 "KTX 재진입 추진... 시민 편의성 증대" (광주 O2)
- ◆ "광주역, 폐쇄하고 지역민에 환원해야"(무등일보 06)
- ◆ 광주역, 일단 존치한다(광주일보 01)
- ◆ 벨라루스서 '신발' 갈아 신는 러 열차 왜(중앙 18)
- ◆ 靑인프라 시장 700조 '코리아 마니' 선제적 사업 발굴을(서울경제 O5)
- ◆ "한국 철도, 유라시아 철도망과 연계 중 내륙 진출을" (경기 O3)
- ◆ 지방공공기관 21곳~8곳 통폐합(동아 O8)
- ◆ 공공기관 임금피크제 도입 '지부진'(세계 15)
- ◆ [기고]잃어버린 30년 동서고속철, 주민 힘으로 찾아야(강원도민 O7)
- ◆ [독자투고] "끓어오른 열매" 경원선은 달려야 한다(세계일보 26)
- ◆ 철도 중앙선 전철역~신경주역 복선전철화 착공(매일)
- ◆ 김해 폐선 철도에 '낙동강 레일파크' 내년 개장(연합뉴스)

2015. 07. 31. [금]

- ◆ 수목지장물 명도소송 합의 성남~여주 차량기지 건설 '속도' (경기일보10)
- ◆ '준폐기' 광주역 존치 가다... 찬반 예고(광주일보2)
- ◆ 신분당 연장선 역명 낙점... 靑민갈등 또다른 뇌관(경기일보2)
- ◆ 철국 왜관역, 5년만에 '새마을 열차' 정차(경북일보11)
- ◆ 모노레일, 교통 넘어 '랜드마크'로(경북일보6,국민일보31)
- ◆ '더위'와의 전쟁(광주일보7)
- ◆ 동해남부선 터널작업중 열차에 치여 숨져(경상일보5)
- ◆ "한국 국제철도기구 가입 위해 만장일치 대신 특별협정 추진" (중앙일보16)
- ◆ 임금피크제 혼선 최소화 - 노동유연성 강화 효과(문화일보5)
- ◆ [시론] 철도산업 성공적 해외진출 하려면(서울경제39)
- ◆ 철도공단, '환경관리업무편람' 제작 및 배포(아시아투데이)
- ◆ 철도시설공단 하계 캠프(NEWS)
- ◆ 수서역세권 개발사업 본격 시작(파이낸셜뉴스)
- ◆ 별내·하남선등 수도권 광역철도 3곳 연내착공...예산 150억원 확보(news1)
- ◆ 권익위, 전철 건설로 막힌 이동로 개설 요구 현장조정(NEWS)
- ◆ '인천철 GTX' 늦어지나...B노선, 예비타당성 조사 후순위로 밀릴 듯(아시아경제)
- ◆ 코레일 서울 수색역세권 DMC역 구역 개발 공모(연합뉴스)
- ◆ 현대로템 '인도 철도공사 입찰 참가 자격 제한'(연합뉴스)
- ◆ 한국감정원 노사, 임금피크제 도입 합의(연합뉴스)
- ◆ 추귀중 추대사 '부산~북한~중국 대륙철도망 희망'(파이낸셜뉴스)

경조사

경영지원실 경영노무처 설명식 차장보 모친상
 □ 발 인 : 2015년 7월 24일

수도권고속철도건설단 송춘근 부장 부친상
 □ 발 인 : 2015년 7월 28일

수도권본부 김포철도사업단 나성필 차장 부부상
 □ 발 인 : 2015년 7월 27일

시설장비사무소 장비차량부 서인덕 차장 빙모상
 □ 발 인 : 2015년 7월 29일

호남본부 건설기술처 김철민 차장 부친상
 □ 발 인 : 2015년 7월 30일

기술본부 전자통신처 원희희 차장 빙부상
 □ 발 인 : 2015년 7월 17일